

美 전역 시위에도…트럼프 ‘반이민 정책’ 강행

이슬람권 7개국 출신 미국 입국 금지

트럼프 성명·트위터 “취소 뜻 없다”

행정명령 대상 국가 확대 가능성도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국내외 격렬한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며 해명에 나섰다.

이들 국가 출신이더라도 영주권자의 입국은 허용하기로 하는 등 세부적으로 제한 범위를 좁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으로써 실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법원의 강제송환 금지 결정이나 주말 내내 미 전역에서 이어진 시위에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주요 각료는 여전히 행정명령 옹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 성명을 내고 “언론이 잘못 보도하는 것처럼 무슬림 금지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뉴욕 주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금지된 국민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국토안보부(DHS) 역시 성명을 내고 “사법명령에 순응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

미 비자발급 일시 중단 국가

미국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테러와 관련된 이라크 등 무슬림 7개국의 국민과 이들 국가 국민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국적도 가진 이중국적자도 마찬가지로 90일 동안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 불허



27일(현지시간) 초강경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로다. 금지된 여행은 여전히 금지되는 것이며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 비자 거부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행정명령 수행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의 행정명령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상원의원들을 향해 “두 의원은 세계 3차대전을 시작할 기회나 노리지 말고 이슬람국가(IS), 불법 이민, 국경 안보에나 에너지를 쏟으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인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린지 그레이

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 앞서 “유럽 전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라. 세계가 정말 끔찍하지만지 엉망진창이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강력한 국경과 극단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트윗을 남기며 행정명령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해명에 나선 라인스 프리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도 국경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의심이 가는 여행자들을 억류하고 신문할 재량권이 있다고 말해 또다시 혼란을 가중했다. “미 영주권 소지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발언은 하루 전까지도 7개국 출신 영주권자들의 미국 재입국 허가는 케이스별로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데 비하면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이다.

그러나 프리버스는 “더 나은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7개 국가에서 온 여행자들은 임시로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관 관리나 국경순찰원의 재량권이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멘이나 리비아를 자주 오갔다고 판단했다면 일시적으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명령 적용 대상국이 7개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프리버스는 이 행정명령이 7개국을 지목한 배경에 대해 미 의회가 이들을 “테러리스트 은신과 관련해 7개의 최고 요주의 국가들”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그 적용 대상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미국 내 미등록 한인 체류자 23만명…

외교부 “관계당국과 협력 모색할 것”

외교부는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이 현지 한인 불법 체류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미국 관계당국과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신 행정부의 이민 정책 동향을 지켜보면서 우선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미비한 우리 국민의 체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미 관계당국과 협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 중단과 잠재적 테러위험이 있는 7개 국가 국민의 입국 일시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초강경 반 이민·난민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집계한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는 2011년 기준 23만 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미스 유니버스’ 1위는 프랑스 치대생

후보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65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 2위는 아이티의 라엘 펠리시어(25·오른쪽), 3위는 콜롬비아의 안드레아 토바르(23가) 각각 차지했다. 이날 수상자들이 순위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IMF “한국 ‘일본 잃어버린 20년’ 닮아가…” 지적

한국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디플레이션 관리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IMF는 최근 내놓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

으로부터 교훈’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이 최근 직면한 도전은 일본이 이미 맞았던 도전과 유사하다면서 한국도 일본처럼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지 주목된다고 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곧 인구 감소가 닥쳐오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의 극적인 하락과 물가상승세의 부진 등에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직면해 있어서 일본의 20년 전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일본을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앞으로 20년 이내에 56%까지 급전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67 북중국 통일 탁발도

탁발도(拓跋猷, 408-452)는 북위의 3대 황제로 개국 군주 도무제의 증손이다. 2대 명원제의 장자로 한인귀족을 대거 등용해 국력을 신장시키고 하북을 통일해 북위의 전성기를 열었다.

423년 16세의 나이로 즉위했다. 한인 귀족 최호 등의 보좌에 힘입어 424-425년 외몽골의 유연을 공격, 멀리 고비사막 이북인 막북 지방으로 내쫓았다. 426년에는 장안을 점령했다. 427년에는 하국 수도 통만을 점령하고 431년에는 관중 전역을 장악했다. 이어 북연 북량을 차례차례 멸망시켜 439년 하북통일을 완성했다. 이로써 북중국의 5호 16국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중국 북방 흉안령산맥 출신의 선비족이 중원의 패자가 된 것이다. 398년 태조 도무제가 평성으로 도읍을 옮긴지 40여년만이다.

러는 군대집정에서 면제되었다. 이에 따라 남조의 유송과 대규모 전쟁을 벌여야 하는 왕조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438년 태무제는 50세 이상인 자에 게만 승려 자격을 허용한다는 조서를 내렸다. 젊은 사람은 농사를 짓거나 병력에 종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446년부터 철저한 배불(排佛)이 실시되었다. 중국에서는 4번의 불교탄압이 있었다. 역사에서는 이를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法難)이라고 하는데 그 시초가 태무제 때의 법난이었다. 장안의 승려를 모두 죽이고 불전과 불상을 불태웠다. 수도 평성에서도 유사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그는 인물됨이 씩씩하고 강건하고 사납고 용맹스러웠다(勇武嚴酷). 성에서 적과 맞서 진을 치면, 화살과 돌이 날아오는 것을 무릅쓰고 친히 나섰다. 좌우에서 사상자들이 계속 나와도 정

한족 등용·불교 탄압 등 내정개혁 주도

그는 대외 정복 전쟁과 더불어 적극적인 내정개혁에 착수했다. 개혁의 키워드는 한화정책(漢化政策)이었다. 한족과 비한족의 통혼을 장려하고 다수의 한인 지주 관료를 발탁했다. 그는 도무제 시절 상투를 틀고 관모를 쓸 것을 권위한 최광의 아들로 학문이 깊고 경륜이 뛰어나 하북 통일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는 도무제 때 황제를 도와 문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고 명원제 때 황태자 시절 스승이던 인연으로 크게 쓰였다. 태무제 때까지 연속 중용되어 삼조원로(三朝元老)로 불리었다.

북위 왕조는 불교의 전성기였다. 3대에 걸쳐 황실은 불교를 적극 보호했다. 수도 평성과 그 주변에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 국가권력에 힘입어 불교가 널리 전파되었고 세를 넓혀갔다. 중앙의 도인통(道人統) 아래 적극적인 불교 관리 기구가 만들어졌다. 사원이 지방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중화사상이 강한 최호에게 불교는 인도에서 넘어온 이교였다. 불교를 견제하기 위해 구경지라는 도교계통의 도사를 태무제에게 천거했다. 황제는 점차 불교에서 도교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 사실 유목국가적 전통의 북위 지배계층에게 사색적인 불교는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승

신과 안색이 태연자약했다.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 어떤 때는 병사를 바로 장수로 발탁하기도 했다. 근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재능만을 보고 썼다. 듣고 살피는 것이 자세하고 빈틈이 없었고 아래 사람에게 속이는 일이 없었다.

450년 유명한 국사사건(國史事件)이 일어났다. 최호는 북위의 역사를 편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중국의 전통에 따라 ‘되도록 실록에 따른다’는 방침에 따라 역사를 서술했다. 과거의 북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함에 따라 선비족의 불만이 폭발했다. “국악(國惡)을 폭양했다”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다. 태무제는 최호를 비롯해 관계자 128명을 처형하고 5족을 모두 주살하였다.

450년 황제는 강남의 유송을 정벌하기 위해 친정했다. 남쪽의 화하까지 도달했으나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남연주, 서주, 예주 등 6주를 파괴했다. 죽이고 노략질한 것이 너무 많아 헤어질 수 없었다고 한다. 장정들은 참수하거나 허리를 잘랐고 간난 아이들은 창끝에 꿰서 돌리면서 출초고 놀였다. 452년 환관 종애가 황제를 시해했다. 종애의 모함으로 황태자가 근심 끝에 죽자 황제에게 주살될 것을 우려해 시해한 것이다.



G.O. 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부근 남동측 토지 864.8㎡ 건물 1514.31㎡ 감정가 20억7천2백 ▶ 최저가 14억5천
- ★ [공장] 광주시 북구 일곡동 OB맥주 광주공장 부근 토지 1872.59㎡ 건물 1540.1㎡ 감정가 13억7천2백 ▶ 최저가 9억6천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6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1백 ▶ 최저가 7억7천1백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무인텔최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7백 ▶ 최저가 12억4천1백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16억3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18억4천6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최고의 투자까지 월수익 최상 (대기업 임대중) 토지 9,280㎡ 건축 2,885㎡ 매매가 170억
- ★ [토지]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토지 23,147㎡ 매매가 평당10만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당후 협의가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층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는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